

전주시, 한국적 슬로시티 재창조 선언

친자연·친환경 정책 푸드 활성화 등 내세워

전주시를 비롯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적 슬로시티 재창조를 선언했다.

앞서, 한국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열린 제4기 임시총회에서 "한국시정군수협의회 4기 출범과 한국슬로시티 10년을 맞이해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 항목 등을 바탕으로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한국적 슬로시티 재창조 선언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20일 상주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정백 상주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박선규 영월군수 등 국내 11개 슬로시티 자치단체의 시장·군수, 한국슬로시티본부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11개 슬로시티 자치단체장들은 국내 슬로시티 도입 10주년을 맞아 슬로시티가 지향하는 3대 운동인 △슬로 라이프(주민) △슬로 투어리즘(방문자), △슬로시티 푸드(생명사랑)를 지키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10가지 전략을 담은 '한국 슬로시티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내 11개 슬로시티 자치단체 대표와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김승수 전주시장 오른쪽)이 20일 경북 상주시청에서 열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 협의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한국슬로시티 선언문'을 채택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0대 전략은 △친자연·친환경 정책 및 전략 추진 △슬로시티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담당부서)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발족 △국내 전 슬로시티의 연결과 융합 △방문객의 행복 평가 및 계량화를 통한 슬로시티 품질향상 추진 △슬로투어리즘 운동 전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슬로시티 육성 △슬로시티 푸드 활성화 △지역유산과 전통문화 존중 △한국의 21세기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산과 역 담당 등이다.

이를 통해, 슬로시티를 구성하는 주

민들은 더 나은 인생을 누리고, 방문자는 체류할 동안 느림의 가치를 배우고 달콤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또 이러한 한국슬로시티 재창조를 통해, 지방의 고유한 문화를 복원시키고, 지역경제 자립을 이끌어 내 공동체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지방의회 등의 건과 2016년 재정 수입 지출 결산 승인 사항, 2017년도 사업 계획, 예산승인 등의 안건의 논의됐

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슬로시티본부(이사장 손대현)가 2017년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주요 사업을 알리고, 한국슬로시티 도입 1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단체장들은 국제슬로시티연맹과 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상호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해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급식비 횡령’ 재임용 교장, 자진사퇴

도교육청 “부정적 여론 커지자 자진 철회 뜻 밝혀”

학교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재임용됐던 전북 익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자진 사퇴했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의 한 사립학교 A 교장이 지난 17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A교장은 사퇴 처리됐다. 지난 1일 교장직에 복귀한 지 16일 만이다.

이는 교장 재임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북도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자 당사자가 교장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덕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여론 등이 커지자 A교장이 자진 철회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자진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자료를 내고 “시민의 힘으로 급식비를 횡령한 학교장을 물러나게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A 교장은 이 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교장으로 있으면서 급식비 4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고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파면됐다.

그러다 교원 임용 자격이 회복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1일 교장으로 복귀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을 산바 있다.

경찰 따돌리려 도주하던 중 순찰차 파손한 40대 검거

소란을 피워 자신을 잡으려온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30km를 도주하며 순찰차 6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3명을 부상시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20일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정모씨(43,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정씨는 지인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분을 부수고 쌀을 던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이 심해서 지인의 집에서 화분을 깨부렸다. 갑자기 경찰이 쫓아오니 나도 모르게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냉탕 배수구에 발 낀 8세 남아 사망

경찰, 목욕탕 직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정읍의 목욕탕에서 냉탕 배수구에 발이 낀 남아가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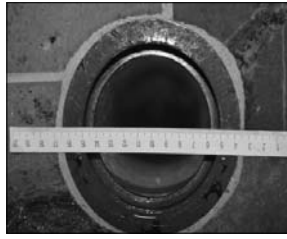
전북소방본부는 20일 어제 오후 10시께 정읍시 소재의 한 목욕탕에서 8세 이모군이 냉탕에 발이 끼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목욕탕 직원인 김모(40)씨는 영업마감 시간인 오후 11시를 앞두고 청소를 하기 위해 배수구를 열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지 못하고 탕 안에 들어간 이군은 물과 함께 발이 배수구로 빨려들어 가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 중 비명을 들은 이군의 아버지와 김씨는 물을 퍼내고 이군을 구하려 했지만 수압이 강해 실패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발을 꺼내긴 했지만 이미 이군은 물을 많이 마셔 기절한 상



태였다.

소방 관계자는 “배수구로 물이 빠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군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리까지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목욕탕 직원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필리핀 어학연수 학생 폭행한 인솔교사 검찰 송치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솔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어학연수 과정에서 학생들의 빵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솔교사 A(26)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진행된 어학연수에서 초·중학생 11명의 빵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늦은 시간에 리면

을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1명 중 1명은 A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필리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현지 수사 등 어학연 전체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를 인수해 분석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 학생들의 진술 등을 받아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내일 세계물의 날 기념 행사 열어

전주시는 제25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오는 3월 22일 용흥초등학교와 삼천 둔치에서 시민과 사회 환경 유관단체, 각급 기관 관계자 등 1,300여명이 참여하는 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2일인 ‘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정·선포해 1993년부터 기념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인 난타와 전통무예 공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 김명지 시의

장, 진흥 전북 정부 부지사 등 기념사, 격려사가 이어지고 시민단체 대표 5명이 물 사랑 지킴이의 동참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에 이어, 풀인을 하지 못하면 작두에 올랐도, 백령도 등 국내 동서남북 4개 장소에서 채수된 물과 삼천천에서 채수한 물을 넣고 작두 펌핑하여 해당 용수를 확보하여 기원탑을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데 이는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전북의 힘을 모아 소통과 화합으로 다 함께 나아 가자는 의지를 표현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